

스탈린 체제와 소련 사회

박수현*

I. 머리말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말에 이르는 약 10년간의 시기는 구 소련 체제의 전개 뿐 아니라 소련 붕괴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 체제전환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 시기에 걸쳐 소련 사회의 모든 영역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흔히 '위로부터의 혁명'(revoliutsiia sverkhu)으로 일컬어지는 스탈린의 급진적인 체제변혁에 의하여 이전 시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도들이 본질적으로 변형되었다.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 이전까지 지속된 단일 이념체제, 계획·명령경제체제, 집단·국영농장제도, 위계적 거대 관료체제, 국가의 전반적인 사회 통제 등 구 소련체제의 주요 골격이 구축되었다.

둘째, '러시아혁명'을 일련의 연속적 단계로 파악할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스탈린의 '위로부터의 혁명'에 의하여 일단락지워졌다. 레닌을 주도로 한 볼셰비키는 1917년 10월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정치 혁명'(political revolution)에 성공한 뒤 연이어 '사회 혁명'(social revolution)에 착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레닌의 사망 당시 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소련 사회의 개편은 아직 완결되지 않고 있었다. 그 대신 레닌은 소련 사회의 사회주의적 변혁과 관련해 '전시공산주의'와 '신경제'체제라는 두 개의 상충된 대안적 모델을 남겨 주었다. 이러한 사회 변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은 궁극적으로 레닌의 후계자로 부상한 스탈린에게로 넘겨졌다. 그리고 스탈린은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하여 소련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이루었다.

셋째, 이 시기는 위에서 언급한 소련 체제의 주요 특징과 함께 개인독재와 여러가지 비(非)사회주의적 양상을 보였던 '스탈린체제'를 낳았다. 스탈린 사후의 소련 정치는 이같은 스탈린주의의 유산에 대한 처리가 주요 주제를 이루었

으며, 결국 이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시도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로 끝나면서 소련 체제의 붕괴로까지 연결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탈공산주의'(post-communism)라는 사상 전례없는 본질적 체제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혼동과 갈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상의 저변에는 스탈린 시기에 구축된 소련 체제의 제도적·전통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소련체제의 전개와 탈공산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스탈린체제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주로 통치 엘리트, 당·국가제도, 명령경제체제 등 정치·경제적 측면에 치중하면서 소련 사회 부문은 상당히 관심의 영역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소련 사회에 대한 유관자료의 접근이 어려웠다는 점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 있어서 한동안 서방학계의 소련 연구를 지배했던 '전체주의'(totalitarianism)적 관점에 의해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은 데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초창기 소련 연구자들에 의하여 확립된 '전체주의' 접근법은 나찌 독일과 함께 스탈린 치하의 소련을 주대상으로 한 것으로,¹⁾ 소련 체제의 국가와 사회 관계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고 후자는 이를 거의 전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고 본다. 즉 소련 사회는 독재자 또는 당·국가로 대변되는 정권으로 하여금 자체의 요구·필요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용케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련 사회는 소련 체제의 작동에 어떤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적절한 분석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스탈린 사후 소련 체제에 상당한 질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60년대 중반 이후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²⁾ 그리고 근년에 들어 와 일군의 소련 전공 사회과학자들 가운데 '전체주의' 시각을 부정하고 소련 사회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스탈린체제를 고찰하려는 움직임이 새로 대두되었

* 경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1) '전체주의'체제에 대한 고전적 저작은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5)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전체주의'체제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6가지 특성으로 전체적이고 천년왕국설적인 이데올로기, 전형적으로 단일 지도자가 이끄는 단일 대중정당, 테러적인 경찰통제,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국가의 거의 완전한 독점, 억압 수단에 대한 국가의 거의 완전한 독점, 경제 전체에 대한 중앙 통제와 지시를 들고 있다.

2) 대표적인 비판으로는 Stephen F. Cohen, *Rethinking the Soviet Experience: Politics & History Since 191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chap. 1을 참조.

다. 그 중 대표적인 학자로는 피츠패트릭(S. Fitzpatrick)을 들 수 있다. 그는 종래의 스탈린주의 연구에 있어서 전체주의 모델의 영향으로 “사회는 전체주의 정권의 강력한 행위에 의하여 모양을 갖추고 조작되는 무기력하고 특징없는 객체로 축소돼” 왔다면, 분화되고 가동성이 높은 사회로부터의 선도적 행위와 반응에 집중하는 ‘아래로부터의’(from below) 접근법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³⁾ 이러한 접근법은 그간 전체주의 시각에 의하여 가려져 있던 소련 사회를 ‘복원’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⁴⁾ 그러나 이같은 시각은 아마도 전체주의 모델에 대한 지나친 ‘반발심’으로 인하여 스탈린체제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밑으로부터의’ 사회적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주도적 국가로부터 나오는 ‘위로부터의’(from above) 정치적 요소를 너무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인다.⁵⁾

이같이 살펴 볼 때, 스탈린 시대 소련 사회에 대한 적절한 접근방법은 ‘국가’와 ‘사회’의 어느 하나에 일방적으로 치중하지 않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에 입각하여, ‘국가’와 ‘사회’를 “그 경계가 고정돼 있지 않고 쟁론과 재규정에 노출된, 이데올로기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상호작용적 영역”⁶⁾으로 이해한 바탕에서 시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스탈린체제 하의 소련 사회 고찰에 있어서, 이같은 국가와 사회 간의 ‘상호침투’(interpenetration)⁷⁾적 시각에 기초하여 ‘위로부터의 혁명’의 전제로서 ‘신경제

3) Sheila Fitzpatrick, "New Perspectives on Stalinism," *Russian Review*, vol. 45, no. 4 (October 1986), pp. 357-373. 인용 부분은 p. 359.

4) 사실상 이보다 더 일찍부터 스탈린 시기의 소련 사회에 대한 깊은 연구는 이미 진행돼 왔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는 레빈(M. Lewin)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레빈은 피츠패트릭 등 최근의 ‘수정주의’ 사회과학자들과는 달리 전체주의 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로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않다. 스탈린 시대 소련 사회에 대한 60년대 이래 레빈의 주요 저술은 Moshe Lewin, *The Making of the Soviet System: Essays in the Social History of the Soviet System* (New York: Pantheon Books, 1985)으로 모아져 나왔다.

5) 피츠패트릭의 논문에 대한 기존 소련 연구자들의 비판적 반응과 이에 대한 ‘수정주의’ 학자들의 재반론은 *Russian Review*, vol. 45, no. 4 (October 1986), pp. 375-413과 *Russian Review*, vol. 46, no. 4 (October 1987), pp. 379-431에 나와 있다.

6) Lewis H. Siegelbaum, *Soviet State and Society Between Revolutions, 1918-192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3.

7) L. H. Siegelbaum, *Stakhanovism and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in the USSR*,

정책' 시기의 소련 사회를 먼저 살피고, '위로부터의 혁명'의 내용과 이에서 비롯된 소련 사회구조의 변화를 다룰 것이다. 이와 함께 스탈린체제 하에서 새로이 형성된 사회관계 및 사회정서의 구체적 내용과 주요 특성을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 때, '수정주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스탈린체제에 대한 소련 사회의 '지지' 문제도 함께 다룰 것이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앞의 고찰을 바탕으로 서구 사회의 산업화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스탈린에 의해 주도된 소련 산업화와의 기본 성격을 검토할 것이다.

II. '신경제정책' 시기 소련 사회의 내재적 모순

1917년 10월혁명으로 볼셰비키는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 수립에 성공했으나, 혁명 당시의 러시아 상황으로 인해 다음의 '제약조건'(confining conditions)⁸⁾을 안고 출발했다. 첫째, 10월혁명은 맑스주의 원론과는 달리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발생했다. 이것은 소련 사회가 단기간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하기에는 생산력 수준이 너무 낮음을 의미했다. 둘째, 혁명 당시의 지배적인 사회 계급은 농민층이었다.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자와 새 사회주의 정권의 사회적 기반으로서의 산업 노동자층은 아직 형성중에 있었고, 그 규모도 작았다. 셋째, 지배적 사회계급으로서의 농민층의 존재는 사회의 문화적 양태도 결정지었다. 즉 혁명 당시의 사회 문화는 산업 프롤레타리아의 도시문화가 아니라 농민들의 농촌문화였다. 넷째, 따라서 혁명 정권은 소련 사회에서 그 위치가 매우 취약했다. 볼셰비키와 공산당은 특히 농촌 지역으로부터 거의 고립된 상황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볼셰비키 정권은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다. 1차대전의 와중과 잇달은 외국군대의 간섭 하에서 백군(白軍)을 중심으로 한 반(反)혁명세력은 신생 정

1935-19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 10.

8) 이것은 키르쉬하이머(O. Kirshheimer)로부터 빌려온 개념이다. Otto Kirshheimer, "Confining Conditions and Revolutionary Breakthroug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IX, no. 4 (December 1965), pp. 964-974.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혁명은 성공 이후에 혁명 이전 시기로부터 물려받은 제반 여건에 의하여 제약당하며, 혁명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조건'들에 대한 '혁명적 돌파'(revolutionary breakthrough)가 필요하다고 한다.

권의 생존 자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전시공산주의’(voennyi kommunizm)는 바로 이같은 백군과의 사활을 건 내전의 요구사항과 불세비키의 이념 추구가 결합된 산물이었다. 통치·행정의 중앙집중화와 시장요소의 억압을 바탕으로 한 전시공산주의의 주요 조치의 하나는 전선의 군인과 도시 주민들의 식량 확보를 위한 농민들로부터의 강제곡물수거(razverstka)였다. 따라서 국가의 철저한 사회 통제에 기초했던 전시공산주의 체제는 곡물 강제수거와 이에 대한 반발을 둘러싸고, 농민층과 당원 사이에, 그리고 농민과 도시 거주 산업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켰다.⁹⁾

내전이 적군(赤軍)의 승리로 끝날 무렵 농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맘보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농민봉기의 확산으로 표출되고 정권의 과도한 중앙권력집중에 반발한 크론슈타트의 수병반란이 일어나자 레닌은 1921년 3월 10차 전당대회에서 기존의 전시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신경제정책’(novaia ekonomicheskaiia politika, NEP)을 채택할 것을 천명했다. NEP의 핵심적인 조치는 이전의 강제곡물수거 대신 농민들에 대하여 현물세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자유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산업, 운송, 금융, 대외무역 등의 주요 부문을 국영 통제 하에 남기고 일정 정도의 사적 경제부문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시공산주의 하에서 거의 소멸되었던 시장경제 요소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NEP의 이같은 정책전환은 전쟁으로 파멸해진 경제의 재건과 정권과 농민층 간의 심화된 갈등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NEP 질서의 기본 성격은 소비에트 정권(및 노동자층)과 농민층과의 ‘타협’이었으며, 이로 인해 소련 사회는 일종의 ‘이중 구조’의 성격을 띠었다. 불세비키에 비우호적인 농민들이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한 가운데,¹⁰⁾ 부분적인 시장경제의 허용에 따라 국유 기간산업 부문과 함께 도시지역에서는 nepmen이라고 불리는 자영 기업가와 상인층, 그리고 농촌에서는 농민층의 분화가 일어나 ‘부농’(kulak)층이 성장하고 있었다. 아울러 10월혁명과 전시공산주의를 거치면서 위상을 위협받았던 ‘부르조아 인텔리겐치야’들도 유희적 사회 분위기가 속에서 지위를 회복하고 있었

9) Lynne Viola, *The Best Sons of the Fatherland: Workers in the Vanguard of Soviet Collectiv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 12.

10) 1926년 12월의 국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체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는 전체 국민 1억 4천여만명의 17%, ‘부농’을 제외한 농민층은 76%, nepmen과 부농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Nicholas S. Timasheff, *The Great Retreat: The Growth and Decline of Communism in Russia* (New York: E. P. Dutton, 1946), p. 304.

다. 이에 상응해 문화 영역에서도 공식적인 소비에트 문화와 혁명 이전으로부터 NEP 체제의 사적 부문으로 이어진 '소(小)부르조아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다.

Nepmen가운데 노동력을 고용하는 기업가들과 상인들은 75,600명에 달했으며, 소상공인을 합칠 경우 그 규모는 약 855,000명(가족까지 포함하면 2백 7십만 여명)에 이르렀다.¹¹⁾ 여기에 주로 농촌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자영 제조업자들도 근 2백만 명에 달했다.¹²⁾ 농촌에서는 혁명 이후의 토지 몰수와 재분배 과정으로 제정 러시아 말기의 토지귀족과 부농층은 사라졌으나, 신경제정책으로 시장경제 요소가 허용되자 소규모의 자영농들 간에 계층화 현상이 나타나 소위 '부농'층이 등장했다. '부농'은 임노동을 고용하는 사농으로 정의되었으며, 전체 농가의 3.4%에 이르는 약 7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¹³⁾

이들 자본주의적 요소들은 레빈의 지적처럼 그 수효와 수입 규모에 있어서 사회주의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¹⁴⁾ 그러나 다른 사회 집단들, 특히 산업 노동자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영향력과 불평등 구조의 확산이 만족스러운 현상은 아니었다. 산업 노동자층은 전시공산주의 하에서 다수가 군대 징용과 도시 이탈로 그 규모가 약화되었다가,¹⁵⁾ NEP 시기에 들어와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1926-7년 경에 산업 노동자 수는 4백 50만으로

11) Moshe Lewin, "Society, State, and Ideology during the First Five-Year Plan," in S. Fitzpatrick, ed., *Cultural Revolution in Russia, 1928-1931*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8), p. 47.

12) Siegelbaum, *Soviet State and Society*, p. 98.

13) Lewin, "Society, State, and Ideology," p. 49. 정권은 필요에 따라 '부농'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렸으며, 그 규모도 집계 방식에 따라 전체 농가의 3.2%에서부터 5%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M. Lewin, "Who Was the Soviet Kulak?," in Lewin, *The Making of the Soviet System*, pp. 127, 129.

14) *Ibid.*, 48, 49.

15) 산업 노동자는 1917년 초에 약 3백 50만명의 수준을 보였으나 내전이 끝날 무렵에는 1백만 여명으로 줄어 들었다. S. Fitzpatrick, "The Bolsheviks' Dilemma: Class, Culture, and Politics in the Early Soviet Years," *Slavic Review*, vol. 47, no. 4 (Winter 1988), pp. 600, 601. 한편 Diane Koenker, "Urbanization and Deurbanization in the Russian Revolution and Civil War,"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57, no. 2 (June 1985), pp. 424-450에 의하면, 도시 노동자층은 내전 기간 동안 규모가 크게 줄어 들었으나, 질적으로는 약화되지 않고 도시 노동자의 속성과 문화를 계속 유지했다고 한다.

늘어났다.¹⁶⁾ 이와 함께 노동자들은 정권의 대 농민 화해정책에도 불구하고 당의 사회적 기반으로 학교 입학, 상위 관리직으로의 승진, 공산당 입당 등에서 다른 사회 집단에 비해 상당 정도의 특혜적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NEP가 진전되면서 이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내전 이후의 군 제대자와 함께 농촌 인구과잉에 따른 농민들의 도시 이주 및 일시적 도시 취업자(otkhodnik)가 늘어남에 따라 실업률이 2백만명에까지 이를 정도로 계속 증대해 취업안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이 증가했다.¹⁷⁾ 동시에 소련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노동자들간에도 분화가 일어나 임금격차는 1926년에 4배로 커지고 이후에도 계속 높아졌다.¹⁸⁾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노동자들의 농민들에 대한 저항감은 늘어갔고, 특히 사적 부문에서 상대적 부를 추구하는 nepmen과 부농, 그리고 전문기술과 지식으로 인해 높은 임금을 받는 부르조아 전문가들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반감은 궁극적으로 불평등 증대 현상을 야기한 NEP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되었다. 한편 농촌에서도 부농과 다른 농가들 간의 불평등은 부농을 한편으로는 선망의 대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반감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정권 차원에 있어서도 NEP의 기본 성격과 점증하는 계층화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원래 NEP는 레닌의 '숨쉬 여유'론에서 나타나듯이 경제 회복과 농민층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잠정 조치'로 도입되었다. 레닌이 말년의 저작에서 제시한 것처럼 NEP 질서를 사회주의로 가는 장기적인 기본 노선으로 재규정했다고 할지라도,¹⁹⁾ NEP 체제의 이중구조적 성격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러시아혁명의 목표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인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었다. 레닌의 기저 사고는 정권이 농민의 '문화'(kul'tura) 수준을 높이는 교육과 홍보, 설득을 통해 사회주의적 농업 방식의 우월성을 납득시킴으로써 사회주의와의 친화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²⁰⁾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농민층에 대한 일종의 낙관주의적 기대에 근거하

16) Lewin, "Society, State, and Ideology," p. 47.

17) Siegelbaum, *Soviet State and Society*, p. 104; M. Lewin, "Social Relations Inside Industry During the Prewar Five-Year Plans, 1928-1941," in Lewin, *The Making of the Soviet System*, p. 247.

18) Lewin, "Social Relations Inside Industry," p. 248.

19) M. Lewin, *Lenin's Last Struggle*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8), chap. 8.

고 있었으며, 결국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소비에트 정권은 또 NEP 시기에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간극을 줄이고 농민들을 궁극적인 사회주의 노선의 수용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의 소비에트 조직의 강화, 소규모 수공업(kustar')의 진흥, 그리고 협동조합의 확산에 착수했으나, 모두 일반 농민들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부농과 nepmen이 새로이 주어진 기회에 편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²¹⁾ 러시아 농민도 전통사회의 다른 농민들과 비슷하게 기본적인 사회-경제 단위로서의 개별 농가, 소규모 농가 운영, 농촌공동체 등의 자기영속적이고 보수적인 농촌제도와 농촌문화에 집착했으며, 이에 간섭하는 도시 요소와 국가 행위에 대해서 원초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²²⁾

정권은 또 자본주의적 요소의 성장과 계층화의 확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이 기본적으로 정권이 설정한 틀 내에서 제한되게 일어난다고 할 지라도 그것은 정권의 기본 이념과 상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NEP 질서하의 자본주의적 불평등은 정권의 사회적 기반인 노동자층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 집단들간의 갈등 확대로 이끌었다. 더 나아가 NEP의 부정적 현상은 당과 정부의 조직 내부로 전염되기까지 했다. 일부 지방관료들은 nepmen, 부농층과 결탁해 소위 'NEP 도당'을 형성하면서 그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물질적 혜택을 누리는 한편 정부 재화의 불법 거래를 자행하기도 했다.²³⁾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NEP는 내전 이후의 경제 재건과 농민층과의 화해의 맥락 속에서 일정 정도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활시키면서 도입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NEP는 10월혁명이 수반했던 '계약조건'의 반영적 산물이었다. NEP

20) V. I. Lenin, "On Cooperation" and "Our Revolution" in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33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6), pp. 467-475 and pp. 476-480.

21) Roger Pethybridge, *The Social Prelude to Stalinism* (New York: St. Martin's, 1974), pp. 221-36.

22) M. Lewin, "The Social Background of Stalinism," in Robert C. Tucker, ed., *Stalinism: Essays in Historical Interpretation* (New York: W. W. Norton, 1977), pp. 120-2.

23) Daniel R. Brower, "The Smolensk Scandal and the End of the NEP," *Slavic Review*, vol. 45, no. 4 (Winter 1986), pp. 689-706; Lewin, "Society, State, and Ideology," p. 50.

질서 하에서 소련 사회는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 그리고 도시와 농촌, 프롤레타리아 문화와 소부르조아 문화의 공존이라는 이중구조를 보였다. 이같은 이중구조는 사회적 다원주의의 발흥으로 이끄는 한편,²⁴⁾ 그 속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계층화의 확산으로 사회의 갈등요소를 증대시키고 있었다. 이리하여 NEP는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의 증진이라는 일차적 목표 달성에 일정 정도 성공했으나, 그 과정에서 NEP 질서 자체의 내재적 모순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사회 실현이라는 10월혁명의 목표에 부정적인 흐름을 수반하였다. 이렇게 볼 때, "NEP는 ... 러시아혁명의 안정된 결과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한 주장은 적어도 10월혁명 이후의 정권-사회 관계에 있어서는 큰 설득력을 지닌다.²⁵⁾

III. '위로부터의 혁명'과 소련 사회구조의 변화

1920년대 중반 NEP 하에서 소련 경제가 거의 1차대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자 볼셰비키 지도자들간에는 앞으로의 소련사회 발전이라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의가 벌어졌다. 논의는 당시 소련에서 사회주의사회 건설의 핵심 사항을 이루었던 생산력 발전을 위한 산업화와 이와 관련된 농민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해 두개의 상충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부하린(N. Bukharin)으로 대표되는 첫번째 견해는 산업화가 국가와 농민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기초로 농촌의 번성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된 발전과 완만한 속도의 산업화를 의미했다. 반면에 프레오브라젠스키(E. Preobrazhenskii)가 대변했던 두번째 견해에 따르면, 사회주의 하의 산업발전도 자본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시 축적'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축적은 고율의 농업세를 부과해 농업 부문의 잉여를 축출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적 원시 축적'(socialist primitive accumulation)으로 알려진 이 방식은 중공업 부문에 대한 일차적 투자와 빠른 속도의 산업 성장을 의미

24) Stephen F. Cohen, *Bukharin and the Bolshevik Revolution: A Political Biography, 1888-193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p. 270-3.

25) Theda Skocpol, *States & Social Revolu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 220.

했다.²⁶⁾ 따라서 이 두 입장은 소련의 산업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동일했으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과 속도에 있어서 달랐다. 그리고 두 견해 모두 산업화의 경제적 측면에 치중해, 각각의 방식을 수행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사회·정치적 문제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즉 부하린에 있어서는 농촌의 번영 후 농민들이 산업 발전에 대한 투자로 나아가지 않을 경우, 그리고 브레오브라젠스키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고율 농업세 부과라는 강력 조치에 저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불분명했다.

산업화 논쟁은 결정적 결론 없이 계속되다가 1927년 12월의 15차 전당대회에서 위의 두 견해의 절충으로 일단락되었다. 당 대회의 결의문은 당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농업 집단화의 진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1차 5개년계획의 작성에 대한 언급을 포함했다. 그러나 1928년과 1929년에 계속된 심각한 곡물 구입 위기상황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NEP 질서의 내재적 모순을 표면화시켰으며, 산업화와 농민문제에 대한 두 견해의 모호한 절충안 대신 결정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하린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와 스탈린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 간에 권력투쟁과 관련해 입장 대립이 심화되었으며, 결국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스탈린이 급속한 공업화와 강제적 농업 집단화 노선을 채택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런 가운데 1928년 말에 1차 5개년계획이 채택되어 NEP 시기의 시장요소가 억압되고 다시 중앙의 지시가 경제 전반을 규제하는 계획경제체제가 강화되었다. 스탈린의 새 노선은 브레오브라젠스키 등 이전 좌파의 입장보다 훨씬 더 급진화된 것으로, 그 본질은 NEP 시기 이중구조의 타파와 질적으로 새로운 질서, 즉 그 자신이 관념한 사회주의 질서의 추구를 의미했다. 1920년대 말 스탈린에 의한 이같은 노선의 '대전환'은 당시의 곡물구매 위기, 영국과의 외교 단절로 인한 전쟁공포, 공산당 내 '전시 공산주의' 정서의 부활 등의 여건적 상황과 스탈린의 권력추구, 이념적 지향 등의 주관적 요소의 복합적 산물이었다.²⁷⁾ 이리하여 내재적 모순을 지녔던 NEP 체제는 와해되고 1

26) 부하린과 브레오브라젠스키의 견해는 Alexander Erlich, *The Soviet Industrialization Debate, 1924-1928*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chaps. II & IV, chap. III을 참조.

27) 20년대 말의 '대전환'의 근본 원인과 관련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어 왔다. 이 가운데 레빈은 곡물구매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속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었다고 본다. 즉 초기의 곡물위기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농민층에 대한 정권의 억압적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는 농민들로부터 더 큰 저항을 유발했고, 이러한 저항은 또다시 정권의 더욱 강력한 억압을 유발해, '연쇄반응'적 사태 전개 끝에 스탈린의 근본적 노

차 5개년계획과 강제 농업 집단화를 중심으로 한 스탈린의 '위로부터의 혁명'이 시작되었다.²⁸⁾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한 대변혁은 국가 주도하에 과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급속한 공업화와 함께 전국의 농민을 빠른 시간 내에 집단농장이라는 새로운 구조로 강제 편입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거국적인 동원화 체제와 광범위한 억압기제를 동반했다. 이리하여 구 질서를 타파하고 새 질서를 구축하는 변혁 작업은 일종의 '국가주의'(etatism) 방식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련 사회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계획경제의 강화와 농촌의 집단농장화에 따라 NEP 시기에 계속 성장세를 보였던 도시와 농촌의 사적 부문이 크게 파괴되었다. 도시 중심의 nepmen이 운영하고 있었던 민간부문의 자영기업과 소상공업들은 공업화 과정에

선 전환이 나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M. Lewin, *Russian Peasants and Soviet Power*, tr. by Irene Nove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8), parts II & III; idem, "The Immediate Background of Soviet Collectivisation," *Soviet Studies*, vol. XIII, no. 2 (October 1965), pp. 162-197.

- 28) 일반적으로 스탈린에 의한 '위로부터의 혁명'은 급속한 산업화와 대규모의 강제 농업 집단화가 일어났던 제1차 5개년계획기간(1929-1932)의 대격동을 중심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Isaac Deutscher, *Stalin: A Political Biography*,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chap. VIII; Leonard Schapiro,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2nd ed. (New York: Vintage Books, 1971), chap. XXI; Mary McAuley, *Politics and the Soviet Union* (New York: Penguin Books, 1977), chap. 4. 이에 비해 그 의미를 확산시켜 '위로부터의 혁명'이 2단계로 이루어져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공업화와 집단화라는 1차 5개년계획 시기의 '경제적 위로부터의 혁명'과 30년대 후반의 '대숙청'(Great Purges) 및 대규모 엘리트 교체에 따른 '정치적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나뉘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Boris Meissner, "Social Change in Bolshevik Russia," in B. Meissner, ed., *Social Change in the Soviet Un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2), pp. 34-47; Cohen, *Bukharin and the Bolshevik Revolution*, chap. X; Seweryn Bialer, *Stalin's Successors: Leadership, Stability and Change in the Soviet U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 9, 38-41, 59-60. 스탈린 자신은 농업 집단화에 대해서만 '위로부터의 혁명'을 논급하고 있다.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Bolsheviks): Short Course* (San Francisco: Proletarian Publishers, 1939), p. 305. 여기서는 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구 사회·경제 질서가 파괴되고 새 질서가 들어서는 변혁기, 그리고 30년대 후반 '대숙청'을 대단원으로 변혁기의 결과가 굳어지는 공고화기로서 '위로부터의 혁명'을 이해하고자 한다.

서 대부분이 해체되거나 국가통제 속으로 흡수되었다. 농촌에서는 집단화 과정에서 강제적인 '탈부농화'(dekulakization)에 따라 이들 집단이 소멸하였다. 정권은 부농을 '반혁명 활동가,' '여타 반혁명 활동요소' 및 나머지 일반 부농의 3범주로 나누어, 첫번째 범주의 부농에 대해서는 재산 완전몰수 후의 체포, 두번째 범주는 개인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몰수 후 강제수용소로의 추방, 그리고 세번째 범주의 일반 부농에 대해서는 생산수단 몰수 후 집단농장 구역 바깥의 새 토지 배당이라는 조치를 취하였다.²⁹⁾ 그리하여 1931년까지 정권에 의하여 부농으로 규정된 약 3백 50만명이 '탈부농화'되었다.³⁰⁾

둘째,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전국에 걸쳐 중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여러 종류의 공장이 신속히 팽창, 확대되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NEP 시기부터의 농촌 인구과잉을 배경으로 집단화를 피해서, 그리고 강제 집단화 과정에서 발생한 1931-2년의 대규모 기근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의 도시 이농이 발생했다. 집단화로부터의 도피라는 '추동요인'(push factor)과 도시 취업이라는 '유인요인'(pull factor)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대규모 이농으로 1차 5개년계획 기간인 1928-32년 동안 도시로부터의 농촌 유출 인구를 뺀 순 도시 이농자 수는 1천1백 90만명에 달했다.³¹⁾ 1929-35년 동안에는 도시 이주자가 1천 8백만명으로 늘어났으며, 1926년부터 1939년에 걸쳐 총 2천4백만명이 도시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됐다.³²⁾ 이들 도시 이주민들은 대다수 도시 노동부문에 흡수되어, 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소련의 전체 임금 노동자는 1천1백90만명에서 2천2백90만명으로 증가했다. 또 산업 노동자 규모는 1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32년 말에 6백50만명으로 5개년계획 시작 당시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1937년에 이르러 8백만명에 달했다.³³⁾

29) David L. Hoffmann, *Peasant Metropolis: Social Identities in Moscow, 1929-1941*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p. 34.

30) Ibid.

31) S. Fitzpatrick, "The Great Departure: Rural-Urban Migration in the Soviet Union," in William G. Rosenberg and L. H. Siegelbaum, eds., *Social Dimensions of Soviet Industrializa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p. 22의 표.

32) Vladimir Andrie, *Workers in Stalin's Russia: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Change in a Planned Economy* (Wheatshaf, England: Harvester, 1988), p. 32; Meissner, "Social Change in Bolshevik Russia," p. 3.

33) L. H. Siegelbaum and Ronald Grigor Suny, "Class Backwards? In Search of the Soviet Working Class," in L. H. Siegelbaum and R. G. Suny, eds., *Making*

이와 같은 농민층의 대규모 도시 이주는 농촌 지역의 과잉인구와 실업 해소 및 도시지역의 노동력 충원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나, 도시의 수용 능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급격한 주민 증가를 유발하여 커다란 혼란과 함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인구 폭증은 식품과 소비재의 대량 부족 현상을 낳았고 이에 따라 1929-33년 동안 대도시에서는 식량배급제가 실시되었다. 기존 주거시설도 새로운 대량 유입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해 심각한 주택난을 야기했다. 많은 경우 도시로 온 농민들은 도시 외곽에 임시 주거시설을 만들어 거기서 기거했다. 아울러 시 당국의 공공복지 수준도 대상자의 폭증으로 인해 크게 하락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농촌 인구의 대량 도시 유입은 전반적인 도시 생활수준의 대폭적인 저하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농촌생활에서 형성된 자신들의 독특한 가치와 문화 및 생활양태를 가지고 도시로 와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을 발현함으로써 기존 도시 문화와 새로 들어온 농촌문화가 혼란과 갈등 속에 공존했다. 이와같이 해서 급속한 산업화와 강제 집단화에서 비롯된 농민층의 대규모 도시 이농의 결과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도시의 농촌화'(ruralisation of the cities) 현상을 낳았다.³⁴⁾

셋째, 대규모 농민의 노동자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는 높은 수준의 사회 가동성(social mobility)을 의미했는데, '위로부터의 혁명'에 의한 사회 가동성은 노동자의 고등교육 수학과 관리직 진출에서도 나타났다. 앞에서 본 것처럼 NEP 시기의 공식 소비에트 문화와 농민·소부르조아 문화의 공존 속에서 혁명 이전의 지위와 신분을 많이 회복했던 '부르조아 전문가'들은 '위로부터의 혁명'의 시작과 함께 또다른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³⁵⁾ 정권은 NEP 이중구조의 타파에 부응하는 이념 운동을 시도했고 이것이 당시 당 내부와 노동자들간에 존재하던 반(反)소부르조아 정서와 맞물려 일종의 '문화혁명'으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이 운동은 기존의 문화적 이중성의 타파와 프롤레타리아 문화의 확립

Workers Soviet: Power, Class, and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p. 24.

34) M. Lewin, "Grappling with Stalinism," in Lewin, *The Making of the Soviet System*, pp. 303-4.

35) 1929년 10월 당시 소련 경제에 종사하는 전문가 전체의 1/3, 그리고 이들 전문가 가운데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구 인텔리겐찌야 출신이었다. M. P. Kim, ed., *Sovetskaia intelligentsiia: istoriia formirovaniia i rosta* (Moscow, 1968), pp. 126-27, cited in Lewin, "Society, State, and Ideology," p. 68.

을 위한 '문화전선에서의 계급투쟁'의 성격을 띠었다.³⁶⁾

새로운 문화·이념 운동의 추동력은 1928년 봄의 '샤흐띠 재판'(Shakhty trial)으로부터 왔다. 돈바스의 샤흐띠 지역 탄광에서 일하던 일단의 부르조아 기술자들이 외국 부르조아 세력과 공모해 태업을 감행했다는 것이 이 재판의 주 요지였다. 샤흐띠 재판은 정권의 조작적 성격이 강했으나 부르조아 전문가들에 대한 이전의 협력 자세로부터 억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이루었다. 이같은 맥락에서 샤흐띠 재판 이후의 '문화혁명'은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구 부르조아 요소에 대한 투쟁과 함께, 부르조아 전문가들을 대신할 소비에트 지식층 양성을 위한 노동자들의 전문·기술교육 확대, 그리고 노동자들의 기술·관리직 기용으로 전개되었다.

반(反)부르조아 운동은 전반적으로 특권 반대와 반(反)엘리트주의의 성격을 띠었으며, 공장에서의 반(反)부르조아 기술자, 학교에서의 반(反)권위주의, 공공조직에서의 반(反)관료주의 운동 등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벌어졌다. 이와 함께 '프롤레타리아 해지모니'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학교소멸론,' '법소멸론,' '절대적 경제결정론' 등의 이론 분야와 학교에서의 실험교육, 가족 전통과 종교에 대한 공격 등 실천적 측면에서 일어났다.³⁷⁾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문화·이념 운동이 혼란 속에 자체의 추동력을 지니고 잠재적으로 부정부적 속성을 띠게 되자 정권은 이에 대한 통제로 나아가, 1931년 이후에는 다시 질서, 기율과 권위를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부르조아 기술자들에 대한 투쟁과 병행해서 전개된 사회주의 사회의 새로운 지식층, 즉 '붉은 전문가'(Red experts)의 양성 노력은 프롤레타리아 '동용'(vydvizhenie) 운동으로 구현되었다. 동용은 한편으로는 육체 노동자들을 곧바로 전문·관리직에 앉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관리직 승진을 위한 일정 수준의 정식 기술교육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³⁸⁾

36) S. Fitzpatrick, "Cultural Revolution as Class War," in Fitzpatrick, ed., *Cultural Revolution in Russia*, pp. 8-9; idem, "Cultural Revolution in Russia 1928-1932,"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9, no. 1 (January 1974), pp. 33-34. 이러한 성격의 '문화혁명'은 따라서 원래 레닌이 주창했던 '문화혁명'과 구별되어야 한다. 레닌에 있어서 '문화혁명'은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에 요구되는 일반 대중--특히 농민층--의 문화수준 증진과 대중교육의 확산, 그리고 문자해득력의 확산을 의미했다. 이에 대해서는 V. I. Lenin, "On Cooperation," in Lenin, *Collected Works*, vol. 23, pp. 467-475을 참조.

37) 각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Fitzpatrick, ed., *Cultural Revolution in Russia*를 참조.

이러한 노동자 등용 정책은 NEP 시기의 비슷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약 1백 50만명의 노동자가 사무·관리직으로 올라갔으며, 같은 시기에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노동자 수는 근 20만명이 증가했다.³⁹⁾ 노동자 등용 운동은 사흐띠 재판과 비슷한 성격의 1930년 말 '산업당'(Industrial Party) 사건 때 절정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노동자 일반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듯이, 부르조아 지식층의 복권을 천명한 스탈린의 1931년 6월 연설 이후 노동자들의 등용 속도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급속한 공업화와 강제 집단화로 상징지워지는 '위로부터의 혁명'의 변혁기는 소련 사회가 끝없는 유동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혼란과 변화 속에서 NEP 질서는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국가부문과 사적 부문이 공존하고 있던 일종의 혼합경제 체제는 사라지고 전시공산주의 시절과 비슷한 계획경제체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변화를 보였다. NEP 시절의 상징집단이었던 nepmen과 부농층이 소멸되었다. 이와 함께 공업화와 집단화에 따라 사회 가동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대규모의 도시 이농으로 노동자층과 농민층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동시에 부르조아 지식층은 약화되는 대신 노동자 등용 정책으로 육체노동자의 화이트칼라 진출이 급증했다.

IV. 스탈린체제하의 사회관계

제1차 5개년계획을 거치면서 NEP 체제는 해체되고 스탈린체제의 기본 골격이 형성됐다. 레닌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공산당의 유일 지배체제 하에서 국가계획의 명령경제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회요소들은 사라지고 농민들은 집단농장이라는 사회주의 틀 속으로 편입되었다. 1936년에 채택된 스탈린 헌법에 의하면, 이제 소련 사회는 노동자, 농민의 양대 계급과 인텔리겐찌야(즉 화이트칼라 지식인층) 계층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체제는 1930년대 후반의 대숙청을 거치면서 스탈린 개인독재라는 요소를 추가하게 된

38) S. Fitzpatrick,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the Soviet Union 1921-193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chap. 9.

39) S. Fitzpatrick, *The Russian Revolution 1919-193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 134; idem,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p. 187.

다. 그러나 스탈린 개인독재는 지배 공산당 위에 스탈린의 군림이 추가된 것이며, 1차 5개년계획 시기의 대변혁을 거치며 구축되었던 스탈린체제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한 틀 내에서 소련 사회는 정권과의 상호작용 속에 구성 요소들의 활동으로 움직여 나가고, 그 과정에서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변해 갔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사회관계는 자본주의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사회세력들 상호간의 역동적 관계는 아주 약하고 대신 각 집단이 국가와 맺는 관계와 집단 내부 구성원들간의 상호관계가 주종을 이루게 된다. 아울러 국가와 개인 사이에 위치하는 진정한 의미의 중간 집단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세력 간의 관계도 현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주로 개인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현장, 특히 근무처와 작업현장에서의 상호작용으로 표현되기 쉽다. 즉 사회관계에서 미시적 수준에서의 상호작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스탈린체제하의 사회관계도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직접 일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다. 이때 이 세 사회세력 가운데 비중이 큰 노동자와 농민층의 사회관계에 주로 집중할 것이다.

[A] 노동자층

NEP 시절의 소련 노동자들은 10월혁명 이전에 러시아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취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들은 자본가들과의 관계를 경험했고, 또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10월혁명의 어념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은 일정 정도 사회집단으로서의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NEP 체제하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감이 증가했다. 한편 농촌으로부터의 이농자들이 도시로 모여 들면서 기존의 숙련노동자들과 새로이 노동시장에 들어온 이들 비숙련노동자들간에 임금 격차가 증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동층 분화의 부정적 여파를 염려한 볼셰비키 정권은 1927-9년의 임금개혁을 통해 일정정도의 임금 평준화를 추구했다. 이것은 기존의 숙련 노동자들에 있어서 상대적 임금 수준의 저하를 의미했고, 이 때부터 기존 숙련 노동자들과 신규 비숙련 노동자들간에 갈등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⁴⁰⁾

40) Hiroaki Kuromiya, *Stalin's Industrial Revolution: Politics and Workers, 1928-193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 104.

20년대 말 스탈린의 '위로부터의 혁명'에 의한 대변혁으로 대규모의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 오면서 구 노동자들과 신 노동자들간의 갈등은 더욱 증대했다. 당시 소련 당국의 한 추계에 의하면, 1928-32년 동안 약 1천2백50만명이 도시 노동인구로 편입되었으며, 이 가운데 8백50만명이 이농자인 것으로 드러났다.⁴¹⁾ 이같은 신규 노동력은 기존 노동자 집단을 '회석'시켜, 1929년 봄 당시 1918년 이전에 산업노동 부문에 들어온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산업노동력의 50.7%를 차지했던 데 비해 2년 뒤 그 비율은 30% 미만으로 떨어졌다.⁴²⁾ 또 1928년 이전에 제조업 분야에 취업한 구 노동자와 이후의 신 노동자들의 비율은 1933년에 1 대 3, 그리고 1937년에는 1 대 7-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⁴³⁾ 대부분이 농촌 출신인 새 노동자들은 대체로 연령이 낮았으며,⁴⁴⁾ 특별한 기술도 없었고, 따라서 보수도 낮았다. 당시 급격한 공업화 추진에 따라 노동이동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들은 제도화된 공장생활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고 공장 관리층의 지시 불복과 작업 태만에서 구타에 이르기까지 공장 내의 원활한 작업 진행과 사회적 안정을 위협했다. 기존의 구 노동자들은 이런 새 노동자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새 노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공장생활에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같은 신·구 노동자들간의 갈등은 20년대 말 소련 노동자층에 일종의 '프롤레타리아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했다.⁴⁵⁾

노동자층의 내부 갈등과 분화 속에서 정권은 1차 5개년계획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장기율을 강화와 새로운 동원정책으로 나왔다. NEP 시절에 약화되었던 공장 내 '단독관리제'(edinonachalie)가 1929년에 다시 강화되었다. 단독관리제는 공장 관리층으로 하여금 실적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공

41) Itogi vypolneniia piatiletnogo plana razvitiia narodnogo khoziaistva SSSR (Moscow, 1933), p. 174, cited in Kuromiya, *Stalin's Industrial Revolution*, p. 306.

42) Kuromiya, *Stalin's Industrial Revolution*, p. 213.

43) Andrie, *Workers in Stalin's Russia*, pp. 34-35.

44) 주 산업 분야의 전체 노동력에서 22세 이하의 노동자가 차지한 비율은 1930년의 24.7%로부터 1933년에는 41.3%로 증가했다. 1939년에 이르러서도 25세 이하 노동자의 비율은 34.3%로 젊은 연령층이 여전히 큰 비중을 이루었다. Gabor T. Rittersporn, "From Working Class to Urban Laboring Mass: On Politics and Social Categories in the Formative Years of the Soviet System," in Siegelbaum and Suny, ed., *Making Workers Soviet*, pp. 266-7.

45) H. Kuromiya, "The Crisis of Proletarian Identity in the Soviet Factory, 1928-1929," *Slavic Review*, vol. 44, no. 2 (Summer 1985), pp. 280-97.

장 운영에 대한 지배적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1929년의 조치는 대규모 노동이동과 노동자층의 내부갈등이 집중하는 상황에서 노동기율을 강화시키고 관리자의 권위와 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취해졌다.⁴⁶⁾

효율적인 생산량 증대를 위한 동원정책은 '사회주의 경쟁'(sotsialisticheskoe sorevnovanie)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경쟁은 노동자들간에 경쟁을 유도해 원래 계획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목표를 생산케 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이 끼리끼리 모여 '돌격반'(ydarnaia brigada)을 구성하고 돌격반들간에 경쟁적으로 생산목표를 상향조정해서 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돌격반에 참여하는 '돌격반원'(ydarnik)들은 과의 식량배급 등의 특전이 부여됐다.⁴⁷⁾ 그러나 새로운 도시 출신의 청년층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사회주의 경쟁과 돌격반 운동은 다른 노동자들의 소극적 자세와 저항에 부딪혀 별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일례로, 노동자들은 돌격반에 가담하는 대신, 10월혁명 이전에 농촌 출신 노동자들간에 성행했던 '동업조합'(artel)과 비슷한 생산 '공동체'(kollektiv)와 '코뮌'(kommuna)을 결성해 집단 전체로서 공장 관리층과 고용조건을 협상하고 임금을 받은 뒤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가 많았다.⁴⁸⁾ 노동자들은 또 작업기준의 적정화, 노동 집중화 등 '노동의 과학적 조직'(NOT: nauchnaia organizatsiia truda)의 슬로건 아래 전개된 작업의 합리화·효율화 움직임에도 제대로 호응을 보이지 않아 정권의 계획목표 달성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

정권의 대 노동자 정책은 1차 5개년계획 후반기에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했다. 스탈린은 1931년 6월의 '6개 신조건' 연설에서 노동계급이 그 자체의 산업·기술 인텔리겐찌야를 창출해내야 하는 한편, 구(舊) 기술 인텔리겐찌야의 협력을 더 과감히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 때까지의 그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46) H. Kuromiya, "Edinonachalie and the Soviet Industrial Manager, 1928-1937," *Soviet Studies*, vol. XXXVI, no. 2 (April 1984), pp. 185-204.

47) Andrie, *Workers in Stalin's Russia*, pp. 106-7.

48) L. Siegelbaum, "Production Collectives and Communes and the 'Imperatives' of Soviet Industrialization, 1929-1931," *Slavic Review*, vol. 45, no. 1 (Spring 1986), pp. 65-84. '동업조합'(artel)은 보통 도시경험이 많은 연장자를 중심으로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 집단으로 취업한 뒤 모든 비용과 소득을 그들간에 나누는 일종의 집단적 생계확보 조직으로 기능했다(Hoffmann, *Peasant Metropolis*, p. 62). 이 노동조직 형태는 혁명 이후에도 계속 살아 남아 1차 5개년계획 당시 특히 건축, 탄광 분야에서 많이 보였 다(Kuromiya, *Stalin's Industrial Revolution*, p. 241).

'더 많은 배려와 우려'를 보여 줘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⁴⁹⁾ 동시에 그는 숙련-비숙련 노동간의 '좌파적 임금 평등주의'를 폐기하고, "임금이 필요가 아니라 수행한 일에 따라 지급돼야 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아니라--원칙에 근거해져 새로운 임금율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⁵⁰⁾ 스탈린의 이 연설은 20년대 말 이래 사회 전반에 팽배하던 평등주의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이에 따라 공장에 성과급 임금제도가 급속히 확산되고, 곧이어 누진적 성과급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아울러 평등주의적 성격을 띠었던 노동자들의 생산 공동체와 코뮌 조직도 해체되었다. 새로운 반(反)평등주의에 입각한 임금제도 변화는 임금격차 확대로 연결돼, 30년대 전반기에 산업노동자들 가운데 상위 10%의 임금이 하위 10%의 임금을 3배 이상 웃돌았다. 이 추세는 계속돼, 1946년에는 양자의 차이가 5배 이상으로 벌어졌다.⁵¹⁾

평등주의로부터 반(反)평등주의로의 변화 뿐 아니라 집단주의로부터 개인주의로의 변화를 의미한 정권의 새 정책은 1935년의 스파하노프 운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목표량 초과달성 운동을 전국에 확산시킨 이 생산증대 캠페인은 이전의 비슷한 목적의 사회주의 경쟁 및 돌격반 캠페인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커다란 차이점을 보였다. 첫째, 후자가 젊은 도시 배경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면에 전자는 농촌 출신 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년대 말 이후 도시 노동부문에 대규모로 유입되었던 이농 노동자들이 이제 소련 산업 노동력의 다수를 점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둘째, 사회주의 경쟁 운동이 돌격반이라는 집단을 기본 단위로 한 데 비해, 스파하노프 운동은 참가 노동자 각각의 개인적인 성취동기에 호소했다.⁵²⁾ 그러나 차별주의와 개인주의에 입각한 스파하노프 운동도 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일반 노동자들의 반감, 우수 스파하노프 운동자들과 일반 운동자들간의 갈등 등으로 기대효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 일반 노동자들은 특히 스파하노프 운동자들이 세운 고실적이 바로 자신들한테 목표량으로 부과되는 것을 꺼렸고, 또 작업현

49) J. V. Stalin, "New Conditions -- New Tasks in Economic Construction," in J. V. Stalin, *Problems of Leninism*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76), pp. 546-52.

50) *Ibid.*, pp. 536-9.

51) Andrie, *Workers in Stalin's Russia*, pp. 45-46; John Scott, *Behind the Urals: An American Worker in Russia's City of Stee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p. 49에 의하면 1933년 마그니토고르스크 시의 한 공장에서 숙련노동자의 임금은 비숙련노동자의 3배에 달했다.

52) Andrie, *Workers in Stalin's Russia*, pp. 182, 185.

장의 여럿이 함께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참가자들에게만 공이 돌아가는 것에 분개했다.⁵³⁾

1차 5개년계획 이래 소비에트 정권이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실시했던 여러 조치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발, 소극적 자세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정권의 선도 또는 동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지시 불이행, 업무 태만, 결근, 지각, 기재 파손, 다른 노동자 또는 관리직 인물 공격 등을 통한 일탈 현상을 자주 보였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기을 약화는 정권으로부터 수차례의 강력한 처벌 조치를 야기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제재조치는 1932년 11월, 1938년 12월, 그리고 1940년 6월의 노동기율 강화 법령을 들 수 있다.

1932년의 법령은 노동자가 하루라도 무단 결근할 경우 해고는 물론 공장에서 주는 식량배급카드를 박탈하고 공장에서 소유하는 숙소에서 쫓아 내도록 규정했다. 또 1938년과 1940년의 법령은 이보다 더 강화돼 하루 결근과 20분 이상의 지각에 대해 해고와 공장 숙소 퇴거는 물론, 범죄로 간주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로 판결될 경우 6개월까지의 강제수용소 생활에 처할 것을 명령했다.⁵⁴⁾ 1938년과 1940년의 법령은 특히 1936-8년의 대숙청으로 공장 관리급 인사들이 대거 숙청당하면서 발생한 공장 내부의 혼란상과 관련해 나왔다. 이같은 엄격한 규제조치가 간헐적으로 계속 취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스탈린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의 행동양태가 정권의 요구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정권의 강력한 제재법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법령 자체의 무시, 결석계 조작, 인사기록 약탈과 관련 인물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했다.⁵⁵⁾

공장 관리자들도 법규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정당한 결근 사유 인정, 결근에 대한 사후 휴가증 발급, 출근계 날조, 업무 시간 조작, 허위 진단서 작성의 알선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일탈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심지어 방조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특히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심장들은 노동자들과의 상호적응 하에 상부지시 이행보다 노동자들의 편의를 돌보는 경향을 많이 띠었다.⁵⁶⁾ 관리층의 이같은 노동자 비호행태는 일차적으로 당시의

53) L. H. Siegelbaum, *Stakhanovism and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pp. 190-201.

54) Andrie, *Workers in Stalin's Russia*, p. 130; Donald Filtzer,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London: Pluto Press, 1988), pp. 233-4.

55) Andrie, *Workers in Stalin's Russia*, p. 131; Filtzer, *Soviet Workers*, p. 236.

56) L. H. Siegelbaum, "Masters of Shop Floor: Foremen and Soviet Industrialization,"

고수준의 노동이동률과 숙련노동력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20년대 말 이래 소련 사회의 높은 유동성 속에서 공장 관리자들은 숙련 노동이 모자라는 데서 비롯되는 양질 노동의 부재를 양적 측면에서 보충하려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 노동력 상실의 방지는 가장 큰 관심사중의 하나였다.

이와 함께 노동기율 강화나 생산성 향상 캠페인에 따른 공장 실적의 제고는 스탈린체제 명령경제의 메커니즘으로 볼 때 관리층에 결코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구축된 명령경제 운용방식의 주요 두 가지 특징으로 '팽팽한 계획'(taut planning)과 '톱니바퀴 원칙'(ratchet principle)을 꼽을 수 있다. 전자는 중앙에서 각 하위 생산단위에 생산계획을 내려 보낼 때, 그 단위의 생산능력을 가능한 한 최대로 평가해서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매년 한 단위의 생산능력을 추산할 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그 전해의 실적보다 한 단계씩 높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⁷⁾ 따라서 공장 관리자의 입장에서 높은 실적을 올림으로써 상부의 좋은 평가와 함께 보너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다음 해 중앙으로부터의 더 높은 생산계획을 유발함으로써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장 관리층은 노동자들을 독려해서 생산량을 높여야 할 유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상부로부터의 동원 캠페인이나 노동기율을 강화 지시에 대한 관리층과 노동자들간의 일정 정도의 공조자세는 공장 내에서 '연고를 통한 부정'(blat)이라는 독특한 부패 구조의 형성으로도 이끌었다. 즉 일반 노동자들은 그들보다 상위직에 있는 인물들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입하기 힘든 물품이나 공장기자재를 불법으로 입수해 종종 이를 암시장에서 팔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공장 내의 절도, 횡령, 뇌물 수수 등이 자행되었고, 때로는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감독기관이나 비밀경찰 내부에까지 부정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⁵⁸⁾ 이같은 연고 네트워크는 일종의 후견-피후견 관계로까지 그 의미가 더 확산돼 좋은 부서 배치에서 승진에 이르기까지 공장 생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⁵⁹⁾

in Nick Lampert and Gabor T. Rittersporn, eds., *Stalinism: Its Nature and Aftermath. Essays in Honour of Moshe Lewin* (Armonk, NY: M. E. Sharpe, 1992), pp. 143-8.

57) 이에 대해서는 Joseph S. Berliner, *Factory and Manager in the USS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chap. VI을 참조.

58) Andrie, *Workers in Stalin's Russia*, pp. 54-57.

59) 월더(A. Walder)는 모택동 시절 중국의 공장 내에서 발견되는 이같은 탈이념적 후견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스탈린체제 하에서 소련 노동자들은 내부 분화를 거치면서 독특한 사회관계를 형성했다. 1차 5개년계획을 거치면서 대규모의 농촌 출신 노동자들이 기존 구 노동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산업 부문에 유입됨으로써, 또 연이어 도시 배경의 청년층 노동자들이 가세함으로써 소련 노동자층의 내부 동질성이 약화되었다. 이들 노동자들은 공장 생활에 있어서 생산 증대와 노동기을 강화를 위한 정권의 여러 조치에 맞서 내부적 갈등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노동계급이라기 보다는 탈이념적 성향의 비계급적 또는 개인주의적 대응 양상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 주었다. 공장 관리자들은 노동자에 대해 상부의 지시를 집행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으나, 그들이 처한 독특한 상황에 의하여 노동자들과 일면으로는 대립관계를, 그리고 타면으로는 공조관계를 취하는 복합적 양상을 보였다.

Ⅷ] 농민층

'위로부터의 혁명'에 의한 소련 사회의 대변혁은 농민층에 가장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강압과 폭력에 의해 집단농장으로 흡수되면서, 농민들은 그들이 원치 않는 생활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따라서 이들은 스탈린의 강제 집단화에 직면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항했다.⁶⁰⁾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방법은 집단화를 피해 농촌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었다. 실제 20년대 말과 30년대 전반기에 걸쳐 이러한 동기로 수많은 농민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으며, 이들의 대다수는 도시 노동부문에 흡수되어, 앞에서 본 대로 기존 도시생활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동시에 산업 노동자의 구성과 문화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피후견 메커니즘을 '행동원리적 특수주의'(principled particularism)라고 부르고, 이것을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전근대적인 전통적 요소가 나타나는 '공산주의적 신전통주의'(communist neo-traditionalism)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간주한다.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chaps. 1 & 4를 참조. 한편 스탈린체제 하에서의 연고 네트워크는 공장 내부에 그치지 않고 공장 관리자들과 상부 당·국가 관료 사이, 집단농장 농민과 농장 관리층 사이, 상·하위 정치엘리트 사이 등, 소련 사회 전반에 상당한 범위에 걸쳐 확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장 관리자들과 관료들간의 연고 관계에 대해서는 Berliner, *Factory and Manager*, chap. XI을 볼 것.

60) S. Fitzpatrick, *Stalin's Peasants: Resistance and Survival in the Russian Village after Collectiv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p. 5-7.

농민들은 또 집단화를 강요하는 국가관리들과 당원들을 살해하거나 물리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폭동과 소요사태도 상당히 벌어졌다. 어떤 농민들은 집단화에 대한 반발의 한 표현으로 그들이 기르고 있던 가축을 살육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은 폭력적 대응 외에 농민들의 저항은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문화의 영향을 받아 묵시론적이고 예언적인 반(反)정권 소문의 유포로도 나타났다. 즉 농민들간에는 집단화와 함께 적(敵)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곧 선과 악의 대(大)결전이 벌어지며,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예언적 얘기가 광범위하게 나돌았다.⁶¹⁾ 농민들의 이같은 묵시론적 언술은 정권의 집단화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행동으로 이끌기도 했으며, 동시에 전복적인 심리상태를 유발해 집단농장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심리의 형성에 기여했다.⁶²⁾ 강압적 집단화는 또 10월혁명 이후 크게 약화되었던 러시아정교를 부활시켜 농민들은 러시아정교의 여러 상징과 의례를 통해 집단화에 대한 반발심을 표현하기도 했다.⁶³⁾

농민층의 이러한 직·간접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스탈린 정권은 폭력과 억압을 통해 집단화를 계속 밀고 나갔다. 1930년 한때 지나친 강제력 행사의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완화가 있었으나 곧 다시 공격적 캠페인이 재개되었다. 그 결과 1932년에는 전체 농가의 62%가 집단농장으로 편입되었으며, 1937년에 집단화율은 97%에 이르러 러시아 농가의 거의 대부분이 집단화되었다.⁶⁴⁾ 강제 집단화와 함께, NEP 시절 다시 강화되었던 전통적인 러시아 농촌공동체인 미르(mir)가 해체되고 집단농장 행정조직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소비에트 정권은 집단화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이농으로 도시 인구가 급팽창하고 도시생활에 큰 혼란이 일자 1932년의 국내 통행증 발급을 통해 농민들의 이주를 제한하려고 했다. 일종의 소련 내 이동 허가증의 성격을 지녔던 통행증은 농민들에게는 발급되지 않았다. 또 1933년 3월에는 도시에 나가 돈을 벌고 돌아오기 위해 일시적으로 집단농장을 떠나는 농민들에 대하여 집단농장 관리부의 허가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법령이 채택되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아직 공산당의 기반이 취약한 농촌에서 농민들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61) Lynne Viola, "The Peasant Nightmare: Visions of Apocalypse in the Soviet Countrysid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62, no. 4 (December 1990), pp. 747-770.

62) Ibid., p. 767.

63) Fitzpatrick, *Stalin's Peasants*, pp. 6-7.

64) Fitzpatrick, *The Russian Revolution*, p. 126.

집단농장들에 트랙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계·트랙터 배급소 내에 정치부를 설치하고 1935년에 해체될 때까지 농민들을 감독케 했다. 집단농장의 농민들은 일반 노동자들에 제공되는 최저 생계보호의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농민들은 스탈린체제 하에서 일종의 '이류 국민'으로 전락하였다.

강압적 집단화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집단농장 제도가 정착된 이후, 소련 농촌에는 집단농장 농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농,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노동자 및 피고용자의 세가지 집단이 존재했다. 이 가운데 집단농장 농민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집단화에서 제외된 사농은 정부로부터 여러 불이익을 당했으며, 1927년에 약 2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⁶⁵⁾ 세번째 범주는 주로 농장 관리직 종사자들과 기계·트랙터 배급소 기술자들로 이루어졌으며, 30년대에 그 수가 점증했다. 이러한 농촌 구조에서 집단농장 농민들의 지위 향상은 농장 관리직이나 전담 작업조장, 트랙터 기술자가 되는 것이었으나, 제한된 자리, 정권의 농민층에 대한 불신, 필요 기술의 불충분 등으로 그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⁶⁶⁾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상향 이동의 유일한 수단은 농장에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⁶⁷⁾

이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농민층은 집단농장 생활에 대한 전면적 거부 불가능한 가운데 수동적 저항 방식을 취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저항의 양태는 농장 작업을 태만히 하는 대신 각 농가에 귀속된 사영 경작지 경작에 가능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는 것이었다. 원래 사영 경작지는 집단화 과정에서 농민층의 강력한 저항과 이로 인한 농업생산의 급격한 저하에 직면해 정권에 의하여 일종의 양보 조치로 주어진 것이었다. 각 농가에 최고 0.5 헥타르에 이르는 조그만 경작지를 내주어 농가 마음대로 경작케 하고 또 몇마리의 가축 사육도 허용했다. 사영 경작지는 임시적으로 인정되다가 1935년의 집단농장 현장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농민들은 또 사영 경작과 가축 사육에서 나온 농·축산물의 상당량을 자유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허가받은 사적 부문에 치중하고 공적 부문에서의 노동을 소홀히 함으로써 집단농장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리하여 1937년의 경우 소련 전체 경작지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사영 경작지에서 나온 채소, 과일, 우유, 육

65) Stephan Merl, "Social Mobility in the Countryside," in Rosenberg and Siegelbaum, ed., *Social Dimensions*, p. 44.

66) Ibid., pp. 48-56.

67) Lewin, "Society, State, and Ideology," p. 67.

류가 소련 전체 생산량의 50-7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⁶⁸⁾

농민들은 또 집단농장 관리자들과 농촌의 정부관리들에 대해 물리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도 많았다. 30년대 후반의 대숙청 시기에는 비밀경찰 등의 관계 당국에 평소 불만을 품어온 관리들에 관한 고발편지를 보냄으로써 또다른 저항의 채널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공장에서의 관리층과 노동자들간의 관계에서처럼, 농민층과 농장 관리자들과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1939년 5월의 법령에 따른 사영 경작지 약화 캠페인이 보여 주듯이, 농민들 가운데는 집단농장 관리자 및 지방 당국과 결탁해서 불법적으로 사영 경작지의 규모를 늘이고 사육 가축 수를 늘리는 경우가 성행했다.⁶⁹⁾ 또 스타하노프 운동이 농촌으로까지 확산됐을 때 농민들의 큰 반발을 자아 내, 운동 참가 농민들은 다른 농민들로부터 가축을 살해당하고 구타는 물론 살해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이 때 농장 관리층, 그리고 심지어 농촌 행정당국자들도 이런 가해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공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농민과 관리자 모두 스타하노프 캠페인의 성공으로 자신들의 생산기준이 따라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⁷⁰⁾

스타하노프 운동에 대한 일반 농민들의 반응에서 드러나듯, 집단농장 체제하에서의 농민들 상호관계는 전통적인 러시아 미르의 이미지가 상정하는 것처럼 꼭 협력적이고 공동체적인 것 만은 아니었다. 30년대 소련 농촌에서는 농민들간의 다툼이 빈번했는데, 갈등은 주로 농장 귀속재산 및 농장생활에서의 후견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는 농장 관리직에 서로 오르려는 데서 비롯되었다.⁷¹⁾

이제까지 본 것 처럼, NEP하의 농촌 질서는 스탈린체제가 구축되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질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었다. 개별 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촌 구조 대신 집단농장의 새로운 틀이 들어서서 전체적으로 계획경제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농민들은 새 체제를 야기한 강제 집단화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저항했으며, 일단 집단농장체제가 정착된 이후에는 주로 수동적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에 대한 반발감을 표시했다. 농민층이 집단농장체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저항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스탈린 정권의 억압적 기제의 존재에서 그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사영

68) Fitzpatrick, *The Russian Revolution*, p. 146.

69) M. Lewin, "The Kolchoz and the Russian Muzhik," in Lewin, *The Making of the Soviet System*, p. 179.

70) Merl, "Social Mobility in the Countryside," pp. 55-56.

71) Fitzpatrick, *Stalin's Peasants*, p. 246.

경작지의 허용과 기계·트랙터 배급소의 정치부 해체 등 정권의 상당한 양보 조치가 추가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농민층은 집단농장제도를 내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개별농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구조를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집단화 시에 생각했던 것처럼 농촌생활을 아주 끝장내지는 않는 것이라고 인식했을 수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농민들은 집단농장에 대한 수동적 저항과 함께 사영 경작지를 통해, 그리고 농장 내외의 연고 또는 후견 메커니즘을 통해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농장생활을 영위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C] 인텔리겐찌야층

1차 5개년계획 초창기에는 일종의 '문화혁명'에 의하여 부르조아 전문가의 위치가 공격당하고 노동자들의 기술·관리직 등용과 고등교육기관 수학 조치가 대거 취해졌다. 그러나 1931년 6월의 스탈린 연설 이후 이러한 추세는 약화되고 소련 사회에 인텔리겐찌야의 재부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계층화의 흐름이 나타났다.

구 부르조아에 대한 배려의 강조로 이들 집단의 위상이 회복되었고 동시에 소부르조아적 임금 평등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불평등 기조가 확대되었다. 1931년 8월에는 자녀의 고등교육 기관 입학, 식품 배급기준, 요양소 이용 등에 있어서 기술 인텔리겐찌야에 대한 기존의 차별제도가 폐지되면서 산업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가 이들에게 부여되었다. 아울러 관리자, 기술자 및 사무직 종사자들의 봉급이 올라 갔으며, 1932년에는 당관료들의 봉급을 일정 수준하에 묶은 레닌 시절의 '당원 최고한도 봉급제도'(partmaksimum)도 철폐되었다. 또 1934년부터는 전문가와 관리직 종사자들에 대하여 고정 월급이 보장되었다.⁷²⁾ 1934년 1월의 17차 전당대회에서 '소부르조아 평등주의'에 대한 공격은 스탈린에 의하여 다시 확인되었다.⁷³⁾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간의 격차도 증대했다. 스탈린은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슬로건과 함께 잘 훈련받고 대우받는 관리직 종사자들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1935년 11월에는 "지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 간에는 차이가 계속 존재한다"고 선언했다.⁷⁴⁾

72) Lewin, "Society, State, and Ideology," p. 73.

73) Stalin's Report to the 17th Party Congress, in Stalin, *Problems of Leninism*, p. 73.

74) J. V. Stalin, "Address Delivered in the Kremlin Palace to the Graduates from: the Red Academies," in Stalin, *Problems of Leninism*, pp. 741-2; R. V. Daniels, ed.,

이와 함께 조직화된 노동자의 고등교육 충원 운동 및 사회적 입학기준 차별의 약화와 더불어,⁷⁵⁾ '부르조아 전문가'와 '붉은 전문가'의 구별없이 인텔리겐찌야 전체의 전반적 위상이 회복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1936년의 스탈린 헌법은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소련 시민은 평등하다고 선포했다. 이같은 지위 회복 과정에서 '인텔리겐찌야'의 의미도 고등교육을 수학했거나, 전문기술을 보유하거나, 고등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관리적 책임을 맡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⁷⁶⁾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소비에트 인텔리겐찌야'가 자연히 소련 사회에서 새로운 상위계층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노동자와 농민층에서 볼 수 있었던 개인주의 경향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 내부 분화가 증가하면서 지위, 부, 권력 등을 위한 상호경쟁이 증대했다. 집단 전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된 이들 인텔리겐찌야층은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인하여 그 중·상층 부분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새로운 세대가 그 공백을 메꾸었다. 대숙청의 와중에서 지위가 상승한 이 새 엘리트의 다수는 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의 노동자 동용 정책에 의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충원된 사람들이었다.⁷⁷⁾

V. 스탈린체제하의 사회정서 및 사회지지의 문제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스탈린체제 하에서의 사회 분위기는 '위로부터의 혁명'에 의한 총체적 사회변혁이 고조되는 동안에는 이전의 NEP 정서를 뒤집는 평등주의, 집단주의, 급진주의가 부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스탈린의 '6개 신조건' 연설을 계기로 해 그 후에는 변혁기의 사회정서가 퇴조하고 대

The Stalin Revolution: Foundations of Soviet Totalitarianism (Lexington, Mass.: D. C. Heath, 1972), p. 111.

75) 예컨대, 1934-8년 동안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가운데 노동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고등교육기관 충원은 10% 이상 줄어들었고, 1938년에 이르러 재학생의 42%는 사무직 근무자나 그 자녀들이었으며 노동자 가족 출신은 39.9%에 그쳤다. Rittersporn, "From Working Class to Urban Laboring Mass," p. 269.

76) Alex Inkeles and Raymond A. Bauer, *The Soviet Citizen: Daily Life in a Totalitarian Socie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p. 72.

77) S. Fitzpatrick, "Stalin and the Making of a New Elite, 1928-1939," *Slavic Review*, vol. 38, no. 3 (September 1979), pp. 396-8. 또 피츠패트릭은 1차 5개년계획 시기 대학 졸업생의 89%와 2차 5개년계획 시기(1933-7년) 대학 졸업생의 72%가 1941년에 상층 간부직을 점하고 있었다고 추산한다(Ibid., p. 398).

신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능률, 효율성, 질서, 기율이 강조되는 반평등주의, 개인주의, 보수주의가 자리잡았다.⁷⁸⁾ 이같은 근본적 변화의 이유는 여러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은 지속적인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사회관리라는 복합적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성, 즉 '산업화의 절박성'(imperatives of industrialization)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었을 수도 있다.⁷⁹⁾ 비슷한 맥락에서, 그것은 근대적 대량생산이 뚜렷한 사회집단의 형성과 소득 불평등의 진전, 그리고 사회 계층화와 이에 상응하는 가치변화의 자연적 기반을 제공하는 일반적 근대화 과정의 한 보기였을 수도 있다.⁸⁰⁾ 더 구체적으로, 독일 내 히틀러의 부상에 따른 전쟁 위협에 직면해 '정상 경제'(normal economy)와 '정상 사회'(normal society)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1차 5개년계획의 정신은 유지할 만한 가치가 없었던 것이었을 수도 있다.⁸¹⁾ 이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어떤 다른 해석을 택하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위로부터의 혁명'의 진전과 스탈린체제의 전개과정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표방하는 가치의 많은 부분이 포기되고 '부르조아'적이거나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들이 대신 들어섰다는 것이다.

소련 사회의 이러한 정서 변화는 사회 계층화와 불평등 구조의 증대 속에서 20년대 말의 여러 급진적인 사조와 노력이 30년대 중반 이후 정반대의 흐름에 의해 역전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학교사멸론과 실험적 교육이 전통적 교육에 자리를 내주었고, 법사멸론은 정통적인 소비에트 국가·법이론으로 대체되었으며, 역사에 대한 절대적 경제결정론 대신 전통적인 러시아 민족주의가 소비에트 애국주의의 형태로 복귀했다. 아울러 실제 생활에서도 이전의 전통파괴적 흐름은 억제되는 대신, 직장, 학교 등에서 권위와 기율이 강조되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가 재강조되었으며, 반(反)종교정책도 상당 정도 완화되었다.⁸²⁾ 이

78) 한 학자는 이같은 방향 전환을 전시공산주의 이후 1차 5개년계획을 통해 '제 2의 사회주의 공세'를 취했던 소련 정권의 '대후퇴'(Great Retreat)라고 명명했다. Nicholas S. Timasheff, *The Great Retreat: The Growth and Decline of Communism in Russia* (New York: E. P. Dutton, 1946).

79)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3), pp. 104-9.

80) Alex Inkeles,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in the Soviet Union: 1940-195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15, no. 4 (August 1950), p. 478.

81) Rudolf Schlesinger, *The Spirit of Post-War Russia* (London: Dennis Dobson, 1947), reprinted in Daniels, *The Stalin Revolution*, p. 197.

82) 이러한 여러가지 역전 추세의 구체적 내용은 R. V. Daniels, "Soviet Thought in the Nineteen-Thirties: An Interpretative Sketch," *Indiana Slavic Studies*, vol. I (1956),

와 함께 점증하는 사회 계층화 속에서 개인적인 부, 특권, 물질적 안락, 교양(kul'turnost') 등을 추구하는 일종의 '소시민적 속물주의'(meshchanstvo)가 부상했다.⁸³⁾

이처럼 전반적인 사회정서와 분위기가 보수주의, 전통주의, 개인주의, 반평등주의로 회귀하는 가운데, 주요 사회집단들간에도 이에 부응하는 행위양태가 계속 늘어났다. 앞에서 본 것처럼, 노동자, 농민, 인텔리겐찌야층 모두 한편으로는 스탈린체제의 요구사항에 일정 정도 부응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의 틀 내에서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가능한 한 스스로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증진을 추구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주의를 표방한 스탈린체제의 공식적인 사회·정치적 기반세력이었던 노동자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30년대의 소련 노동자층은 공통의 이념, 가치와 행동경험을 나눔으로써 집단적 결속감을 키우게 되는 의미에 있어서의 '계급'으로 보기는 힘들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당시의 소련 노동자들은 서로 이질적 요소를 지닌 여러 노동자들의 집합이었고, 이런 바탕에서 그들 내부의 상호관계, 그리고 정권 및 공장관리층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분화된 행동양식을 형성해 나갔다. 스탈린체제하의 노동자들은 대체로 체제에 대한 충성도와 본격적인 체제저항과, 그리고 양자에 속하지 않는 일반 노동자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⁸⁴⁾ 이 가운데 첫째와 둘째 범주의 노동자는 아주 소수였을 것이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셋째 범주에 속했다. 이들은 체제와 이념에 대한 충성이나 반대 같은 거시적 이슈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스스로의 "생존과 지위 향상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사용하는 기회주의자"적 속성을 다분히 지녔다.⁸⁵⁾

30년대에 소련의 사회정서와 그것에 바탕한 행동양식은 스탈린체제의 유지

pp. 101-21을 참조.

83) Vera S. Dunham, In *Stalin's Time: Middle Class Value in Soviet Fi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p. 19-21.

84) John Barber, "Working-Class Culture and Political Culture in the 1930s," in Hans Gunther, ed., *The Culture of the Stalin Period* (Basingstoke & London: Macmillan, 1990), pp. 10-11.

85) Siegelbaum and Suny, "Class Backwards?," p. 21. 이러한 맥락에서 스탈린체제하의 소련 노동자들을 '노동계급'이 아니라 '도시 노동대중'(urban laboring mass) 또는 '조약한 노동력'(crude labor force, 러시아어로는 rabsila)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Rittersporn, "From Working Class to Urban Laboring Mass"; M. Lewin, "Concluding Remarks," in Siegelbaum and Suny, *Making Workers Soviet*, p. 385.

와 관련해 정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문제로 연결된다. 종래의 전체주의적 시각은 스탈린체제가 테러정치와 같은 고도의 억압기제를 통해 소련 사회를 '원자화'시키고 무력화된 개개인에 대하여 일방적인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스탈린체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요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 스탈린 시대의 소련 사회에 대한 전체주의적 접근법을 거부하는 최근의 수정주의적 사회과학자들은 위로부터의 강압통치라는 측면을 인정하는 한편, 스탈린 정권에 대한 사회의 지지가 존재했다고 본다. 예컨대, 피츠패트릭은 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의 정권의 프롤레타리아 동용 정책과 대숙청시의 승진 등을 통해 상향 이동했던 산업노동자들과 농촌 출신의 이농 노동자들이 체제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1차 5개년계획 시기는 물론 대숙청의 공포정치 시대에도, 소련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강화시킨 카리스마적 지도자로서의 스탈린에 대한 일반적 차원에서의 추앙 외에 이들 가운데 실질적 지지 기반이 존재했다고 본다.⁸⁶⁾

전체주의의 일방적 시각으로부터 일단 벗어나서 수정주의적 견해를 평가할 경우에도, 그러한 견해가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지지'의 의미에 대한 이해방식에 있다. 스탈린의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스탈린을 지지했다고 할 경우, 이 때의 '지지'는 정권으로부터의 혜택 여부와 상관없이 스탈린체제의 이념과 노선에 스스로 동조함으로써 보여주는 지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피츠패트릭이 논하는 '지지'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일정한 '선행적 혜택'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탈린체제하에서 지위 상향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인 정권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는 단순한 '지지'보다는 '상호거래적 수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보인다.⁸⁷⁾

86) 이것은 S. Fitzpatrick, "The Russian Revolution and Social Mobility: A Re-examination of the Question of Social Support for the Soviet Regime in the 1920s and 1930s," *Politics & Society*, vol. 13, no. 2 (1984), pp. 119-141; Fitzpatrick, *The Russian Revolution*; Fitzpatrick, "Stalin and the Making of a New Elite"의 중심 주제이다.

87) 이같은 관점에서 던햄(V. Dunham)은 스탈린 말기의 정권-사회 관계를 전자와 후자간에 혜택과 수용을 서로 주고 받는 '대거래'(big deal)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Dunham, In Stalin's Time, chap. 1

VI. 맺음말

스탈린체제의 확립으로 이끈 '위로부터의 혁명'은 NEP 시절의 이중구조--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공존, 도시와 농촌의 공존--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NEP 질서는 그 자체로서 소련에 있어서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위한 하나의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노선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을 지 모르나, 실제 정권과 사회 관계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20년대 말 이래의 급속한 공업화와 강압적 농업 집단화 정책을 통해서 NEP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스탈린체제를 구축했다. 국가의 주도하에 진행된 그 과정에서 소련 사회는 엄청난 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사회관계와 사회정서의 형성과 발전을 경험했다.

대규모의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와 산업부문에 편입되면서 노동자층의 구성 내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스탈린체제가 전개됨에 따라 이질적 구성요소들이 혼합된 노동자들은 그들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정권 및 공장 관리자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사회주의의 체제 이념을 지향하거나 전체로서의 집단적 결속감을 표출하기 보다는 분화된 개인주의적인 행동양태를 보였다. 집단화로 인해 개별 농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농촌구조를 상실한 농민층도 일단 집단농장제도가 정착된 후에는 새로운 농촌질서하에서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농장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인텔리겐찌야층도 특히 30년대 초반 이후의 반평등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정권의 노선전환을 배경으로 개인적인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스탈린체제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일종의 근대화 작업을 수행했으나, 그 자체의 비사회주의적 정책 요소와 함께 소련식 근대화 과정이 수반한 여건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정권의 요구사항을 겉으로 수용한 채 내면적으로는 탈이념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집단들을 낳았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구미의 산업화, 근대화는 대체로 부르조아 계급 또는 국가 주도에 의한 부르조아 계급의 참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르조아 계급과 이후 부르조아 계급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노동계급에 의한 시민사회의 창출과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때로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에, 그리고 시민사회 구성요소들 간에 상당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산업화가 내거는 체제가치에 대한 참여세력들의 가치수용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이탈로까지는 진전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비해, 스탈린 시대의 소련 산업화는 거칠게 봐 당·국가 관료층이 서방의 부르조아 계급을 대신했다. 여기에서 산업화가 농촌사회의 사회주의화라는 작업과 병행되는 속에서, 빠른 속도의 추구, 대규모의 강제 동원, 행정·관리체계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산업화에 의해 구현하려는 체제가 치와 참여세력들의 지향가치 사이에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양상으로 귀결되었다.

스탈린체제 이후 이러한 괴리 현상의 심화는 체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일종의 '조건적 용인'(conditional tolerance)으로 이끌어,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의 브레즈네프 말기에 이르면 관리·행정을 담당하는 당·국가 관료층, 그리고 노동자, 농민, 인텔리겐치야 등 사회세력들이 모두 형식적인 체제 수용 하에서 실질적으로는 소련 체제의 수호에는 관심없이 개별적인 사적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체제착취'(system exploitation)⁸⁸⁾로까지 발전해 궁극적인 소련 체제의 붕괴로 이끄는 주요한 기본 요인을 제공했다.

88) 브레즈네프 정권 하의 '체제착취'에 대해서는 Yong-Chool Ha, "Stability and Legitimacy: A Case of Drifting Regime Type," paper delivered at the 4th World Congress of Slavic and East European Studies, Harrogate, England, 1990, pp. 18-25 를 참조.

Abstract

Soviet Society Under Stalin

Soo Heon Park

The predominant feature of the Soviet society during the NEP years was its "dual" structure: coexistence of town and countryside,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of proletarian and peasant cultures. Although it may have provided a gradual and evolutionary model for socialist society in its own right, the NEP order showed its inherent contradictions stemming from its "dual" nature in the development of the actual relations between the Soviet regime and society. Stalin destroyed the NEP structure and built the new Stalinist system through rapid industrialization and forced collectivization. In the course of this state-led "revolution from above", Soviet society underwent an enormous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new social relations and sentiments were shaped.

A large number of peasants migrated to the cities and were absorbed into the urban industrial workforce. These new workers brought about a big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industrial labor. Accordingly, heterogeneity among the workers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talinist system. at the same time, they sowed individualistic behaviour pursuing personal interests at the expense of both socialist orientation and collective solidarity in their interaction with the regime and factory managers. The peasants, who remained in the countryside, at first responded to the collectivization drive with a variety of resistant moves. However, once the collective farm system was irreversibly established across the country, they also got adapted to the new life on the farm in search for the opportunities to realize their individual interests. Intellectuals — professionals, specialists, and those employed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 were not the exception to this trend of individualistic pursuit. Especially after the Stalin regime's

shift to anti-egalitarian and conservative policies in the early 1930s, they showed a strong tendency toward the acquisition of material wealth and philistine kul'turnost'.

The above reveals a very important aspect of the Stalinist system that is essential to the understanding of the Soviet version of modernization under the official slogan of socialist construction. However, the Stalinist system gave birth to various social groups which in reality pursued individual interests detracting from socialist ideology, while taking the regime's demands formally.